KREI
농업관측
2019년 11월호

과일

농업관측본부 aglook.krei.re.kr

올해 사과·배 저장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2019년산 저장량 전망(전년 대비 증감률)

11월 출하 및 가격 전망

사과 | 배 | 감귤 (노지온주) | 단감 | 포도 (샤인머스캣)

11월 출하량 — 증가

하락 — 11월 가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통권 제921호 2019년 11월 5일 발행(월간·비매품) 등록번호 나주 다 00001호(1996.10.17)
발행·편집인/원장 김홍상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디자인·인쇄/세일포커스(주)

사과

동향 10월 사과 가격 전년 대비 하락

• 10월 양광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증가(6%)로 전년보다 9% 하락한 상품 10kg 상자에 3만 1,600원(중품 2만 5,600원)이었다.

생산량 올해 사과 생산량 전년보다 7% 증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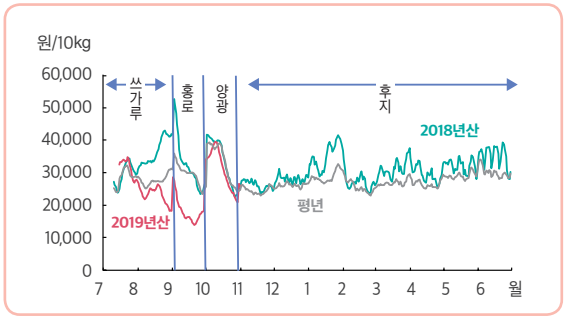
• 2019년산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한 50만 8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하였지만, 착과량이 많고 잦은 비로 과실 비대가 원활하여 단수가 전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중하순부터 수확하여 내년까지 저장·출하되는 후지 생산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후지 사과의 비상품과율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9~10월 태풍으로 열매가 가지에 부딪히거나 긁혀 표면에 흠집과 멍이 생겼고, 병해충 피해과(탄저병, 복숭아순나방, 노린재 등)가 전년보다 많기 때문이다.

• 또한, 과실 비대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꼭지 열과(경북 영주·예천 등), 반점성장해(경북 의성)가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과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은 2014~18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사과 반입량

주: 평년은 2014~18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산 사과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년		32,954	1,541	507.7
2018년		33,234	1,430	475.3
평년		32,718	1,627	532.3
증감률	전년 대비	-0.8	7.7	6.8
	평년 대비	0.7	-5.3	-4.6

주: 평년은 2014~18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2018년, 2019년 재배면적),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사과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0kg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쓰가루		홍로		양광	후지							
2019년산	상품	31,630	22,604	38,398	17,720	31,585	(26,019)							
	중품	22,324	15,257	27,069	11,412	25,587	(15,380)							
2018년산	상품	29,323	37,238	44,323	33,128	34,829	25,946	27,868	35,580	26,819	31,070	29,259	31,814	34,427
	중품	19,906	25,381	29,803	18,312	25,895	16,316	17,194	22,045	19,498	19,976	20,856	20,882	22,207
평년	상품	29,187	26,776	42,419	30,889	33,572	23,997	25,551	29,227	25,837	26,853	26,084	28,836	30,172
	중품	20,534	19,337	30,829	20,564	25,859	15,694	16,414	19,140	18,195	17,435	18,164	18,795	19,426

주 1) 평년은 2014~18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2019년 11월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저장량 올해 사과 저장량 전년보다 7% 증가 전망

- 2019년산 사과 저장량(12월~익년 6월)은 전년보다 7% 증가한 26만 7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후지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사과 시세도 낮아 저장 의향이 높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과 비중이 높아 내년 설 출하를 대비한 저장량도 많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9년산 사과의 저장성(경도)은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과보다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낮은 대과가 많고, 착색 지연으로 후지 수확시기가 전년보다 7~10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조사되어 경도 저하가 예상된다.

출하 11월 사과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1월 사과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 하락으로 시장 출하보다 저장 의향이 높은 농가가 많아 생산량 증가폭에 비해 11월 출하량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이후 사과 출하량도 저장량이 많아 전년보다 7% 증가한 26만 7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11월에 출하될 사과 크기는 과실 비대가 원활하여 전년보다 크지만, 색택은 좋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격 11월 사과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5,9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2천~2만 4천원으로 전망된다.

■ 2019년산 사과 저장량 전망

단위: 천 톤, %

2019년산	2018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267.4	250.6	279.0	6.7	-4.2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사과 저장성 (경도)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전년 대비	25.1	43.4	31.5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사과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분		11월	12월 이후
2019년산		44.3	267.4
2018년산		43.2	250.6
평년		51.3	279.0
증감률	전년 대비	2.5	6.7
	평년 대비	-13.8	-4.2

주 1) 평년은 2014~18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출하량은 생산량에서 수출량(7.1.~10.31.)을 제외한 것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저품위 사과 수매량과 수출량에 따라 향후 출하량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11월 사과 품질 (전년 대비)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크기	57.3	26.2	16.5
색택	20.4	39.5	40.1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저품위 사과 수매지원>

- 정부는 만생종 후지 사과의 가격 지지를 위해 저품위 사과의 가공용 수매 대책을 실시(10.28.~12.31.)한다. 수매계획 물량은 3만 5천 톤이며, 20kg당 5천 원(정부 2천 원, 지자체 3천 원)을 보조하여 저품위과의 시장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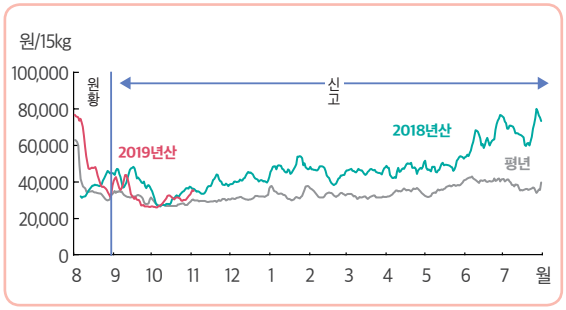
동향 10월 배 가격 전년 대비 하락

- 10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 대비 6%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8,400원(중품 2만 2,900원)이었다. 이른 추석, 9월 잦은 강우로 출하 대기 물량이 많았고, 추석 이후 시장 내 재고 누적과 소비 부진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었다.

생산량 2019년산 배 생산량 전년 대비 3% 증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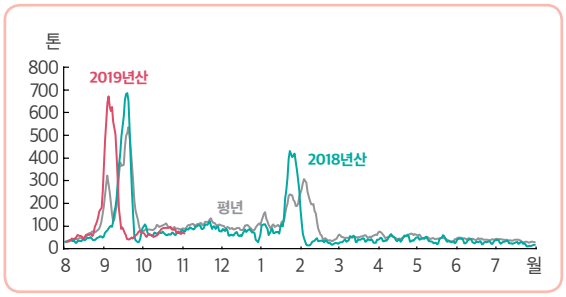
- 올해 배 생산량은 21만 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7% 감소(통계청)하였으나, 단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이은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개화기 저온피해와 여름철 폭염이 극심했던 전년보다 조중생종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후기 과실 비대도 양호해 대과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만,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 발생과 수확기 잦은 강우로 과피얼룩·과피흑변 등의 생리장해 발생이 전년보다 많아 비상품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부 지역에서는 고온·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태풍 및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열과 발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배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은 2014~18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배 반입량



주: 평년은 2014~18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산 배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년		9,615	2,182	209.8
2018년		10,303	1,972	203.2
평년		11,563	2,205	254.9
증감률	전년 대비	-6.7	10.7	3.3
	평년 대비	-16.8	-1.0	-17.7

주: 평년은 2014~18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2018년, 2019년 재배면적),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5kg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원황	신고										
2019년산	상품	49,004	33,355	28,424	(35,069)								
	중품	39,024	25,471	22,878	(26,197)								
2018년산	상품	38,032	41,368	30,298	37,335	40,934	48,431	43,246	45,364	46,922	48,798	63,653	68,988
	중품	29,268	29,701	20,840	26,034	30,434	34,396	34,966	34,009	32,821	34,853	48,062	52,060
평년	상품	35,750	29,962	27,116	28,998	30,940	32,054	32,270	31,474	34,264	35,462	41,267	36,956
	중품	28,104	21,553	19,816	20,422	21,118	22,532	22,636	21,529	22,362	22,611	26,253	19,333

주 1) 평년은 2014~18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2019년 11월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저장량 올해 배 저장량 전년 대비 1% 증가 전망

- 올해 배 저장량(11월~익년 7월)은 11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와 상품성이 낮은 과 위주의 출하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저장량은 전년보다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배 저장성은 전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과와 과피얼룩 등 생리장해 발생이 많고 과실 크기가 커 경도 저하가 예상된다.

출하 11월 배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1월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한 2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저장성이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 의향이 높은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12월 이후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1% 많은 9만 5천 톤 내외로 예상된다.

품질 11월 배 크기 크지만, 모양은 좋지 않을 듯

- 11월에 출하될 배의 크기는 폭염 및 가뭄으로 과 비대가 부진했던 전년보다 크지만, 당도는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개화기 이상 저온 영향으로 유체과(숫배) 및 기형과 발생이 많고, 수확기 잦은 강우로 과피에 얼룩·흑변 발생도 많아 모양 등 외관이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11월 배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 7,300원)보다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3만 4천~3만 7천원으로 전망된다.

■ 생리장해 발생 정도 (전년 대비)

단위: %

구분	많음	비슷	적음
열과	28.3	50.9	20.8
과피얼룩·흑변	37.1	59.8	3.1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9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9년산 배 저장량 전망

단위: 천 톤, %

2019년산	2018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14.8	114.0	146.5	0.7	-21.7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저장성 (경도)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전년 대비	19.1	48.5	32.4
평년 대비	12.8	61.7	25.5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9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분		11월	12월 이후
2019년산		20.3	94.5
2018년산		20.1	93.9
평년		21.5	125.2
증감률	전년 대비	1.2	0.6
	평년 대비	-5.6	-24.4

주 1) 평년은 2014~18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출하량은 생산량에서 수출량(8.1.~10.31.)을 제외한 것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수출 동향

단위: 톤

구분	8~9월	10월	11월	12월~익년 7월	계
2019년산	7,976	5,726			13,703
2018년산	5,710	5,532	5,673	10,114	27,029
평년	5,808	4,633	3,951	10,765	25,158

주: 평년은 2014~2018년 수출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11월 배 품질 (전년 대비)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크기	45.7	43.9	10.4
당도	11.9	63.0	25.1
모양	17.6	52.9	29.5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9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감귤

동향 10월 노지온주 가격 전년 대비 하락

• 10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제주 감귤출하연합회)은 전년보다 15% 낮은 kg당 1,460원이었다. 출하량이 전년보다 22% 감소하였으나, 9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착색이 지연되고 당도도 낮아 전반적인 품질이 좋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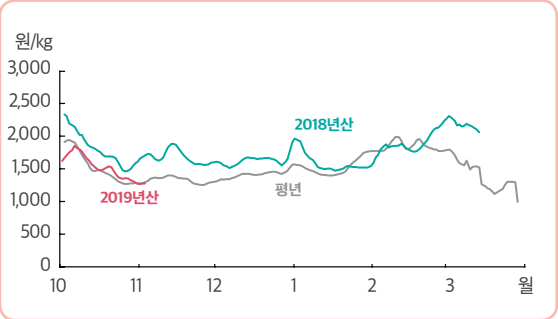
노지생육 노지온주 생육상황 전년보다 좋지 않아

• 10월 말 기준, 노지온주 생육상황은 연이은 태풍과 잦은 강우로 검은점무늬병, 궤양병, 역병(갈색썩음병) 등과 열과 발생이 많아 전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귤응애와 총채벌레 등 해충 발생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지생산 2019년산 노지온주 생산량 전년 대비 7% 증가 전망

•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50만 톤 내외로 전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하지만, 주산지인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착과가 많고 전반적인 과 비대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어 단수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



주: 평년은 2014~18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노지온주 출하량

주: 평년은 2014~18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노지온주 생육상황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전년 대비	8.9	36.2	54.9
평년 대비	7.0	48.0	45.0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9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감귤 월별 도매가격 (평균 가격)

단위: 원/kg

구분	하우스 온주						노지 온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7,523	6,202	5,251	4,776	4,131	3,016	1,455	(1,237)	
2018년	8,167	6,176	4,820	5,674	4,583	2,798	1,701	1,672	1,608
2017년	8,666	6,273	4,407	5,497	4,898	2,858	1,546	1,503	1,802
평년	8,079	6,221	4,709	5,194	4,521	2,778	1,346	1,368	1,405

주 1) 가격은 9개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경락가격임.
2) 평년은 2014~18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3) 2019년 11월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전년에 이어 봄철 유과기에 강한 돌풍과 9~10월 연이은 태풍 영향으로 상처과 발생이 많으며, 잦은 비로 병 발생이 많아 상품성은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극조생온주가 많은 제주시는 해거리와 잦은 강우로 인한 부패과·열과 발생이 많아 전월(전년 대비 1.5%)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착과가 많아 소과 비율이 높았던 서귀포 지역 생산량은 잦은 강우와 수상선과 등으로 과실 비대가 양호하여 전월(전년 대비 10.7%) 전망치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출하 11월 노지온주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태풍과 잦은 비로 10월에 출하될 극조생온주 수확이 다소 지연되었고,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조생온주 착색이 양호하여 출하를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12월 이후 출하량도 조생온주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4%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11월 노지온주 외관과 당도는 전년보다 좋지 않을 듯

• 11월에 출하될 노지온주의 외관은 결점과·상처과와 병과 발생이 많아 전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9월 잦은 비로 당도도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주도 농업기술원(19.10.15.)조사 결과, 당도 8.26brix 로 전년 동기 조사치(9.09brix)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크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2S~S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11월 노지온주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670원)보다 낮은 kg당 1,200~1,500원으로 전망된다.

■ 병해충 발생 정도 (전년 대비)

단위: %

구분		많음	비슷	적음
병	더뎅이병	14.2	70.2	15.6
	잿빛곰팡이병	12.5	82.0	5.5
	검은점무늬병	66.8	29.6	3.6
	궤양병	69.4	26.3	4.3
	역병(갈색썩음병)	48.0	47.2	4.8
해충	귤응애	10.9	63.6	25.5
	총채벌레	4.6	69.4	26.0
생리장해	열과	29.0	56.9	14.1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9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9년산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년		14,704	3,404	500.5
2018년		14,898	3,139	467.6
평년		16,130	3,056	484.6
증감률	전년 대비	-1.3	8.4	7.0
	평년 대비	-8.8	11.7	3.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8년),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노지온주 지역별 생산량 증감률

단위: %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전체
전년 대비	-0.3	11.3	7.0
면적 비중	36.5	63.5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노지온주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11월	12월 이후
6.4	14.2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생산량 및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 여건과 생육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1월 노지온주 품질 (전년 대비)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외관	3.2	19.7	77.1
크기	29.2	20.8	50.0
당도 및 당산비	1.7	9.2	89.1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9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조생온주 당도가 증가하고 산 함량은 감소하는 시기로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당도 및 당산비 등의 품질은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

단감

동향 10월 부유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10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 대비 5%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4,500원(중품 1만 7,400원)이었다. 태풍으로 인한 흠집과 발생으로 비상품과율이 증가했으며, 잦은 비로 착색이 지연되면서 반입량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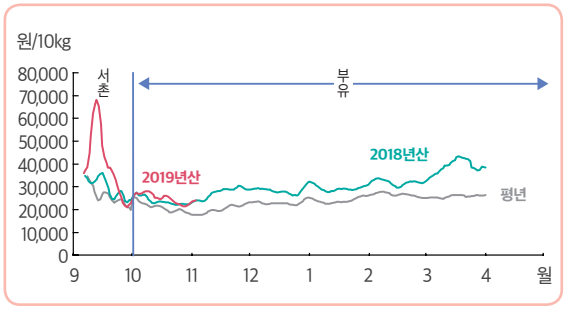
생육 단감 생육상황 전년보다 좋지 않아

• 생육기 충분한 강우 등 기상 호조로 올해 단감 생육상황이 양호하였으나, 9~10월 태풍 이후 생육상황은 전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태풍으로 상처과 발생이 많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착색이 지연되었다. 또한, 둥근무늬낙엽병 발생으로 비상품과 발생이 많아 '나쁨' 비율이 전월 조사치(18.9%)보다 23%p 상승하였다.

• 병해충 발생은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잦은 비로 경남 지역(김해·사천·함안·창녕·창원 등)에서 둥근무늬낙엽병 발생이 많으며, 전남 지역(순천·장성·고흥)에서는 탄저병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린재와 깍지벌레 등 해충 발생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감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은 2014~18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단감 반입량

주: 평년은 2014~18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단감 생육상황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전년 대비	18.8	39.1	42.1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9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단감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0kg

구분		서촌조생	부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19년산	상품	38,510	24,485	(22,972)					
	중품	22,371	17,389	(17,047)					
2018년산	상품	29,308	23,413	27,046	28,557	28,985	31,845	39,136	38,678
	중품	16,862	16,837	18,245	21,241	22,123	24,238	27,963	29,500
평년	상품	28,849	20,980	19,551	22,825	23,816	26,473	25,395	23,009
	중품	15,940	15,708	12,485	16,210	17,746	18,926	17,216	14,891

주 1) 평년은 2014~18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2019년 11월은 1~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생산량 2019년산 단감 생산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1% 많은 10만 6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 감소(통계청)하였으나, 생육기 충분한 강우로 과 비대가 원활하여 단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품종별 생산량은 부유가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접갱신이 많았던 태추 생산량도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7%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하 11월 단감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1월 단감 출하량은 전년보다 4% 많은 3만 3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생육 지연으로 10월에 출하하지 못한 단감이 많았다. 12월 이후에는 농가의 저장 의향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7만 3천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품질 11월 단감 크기 크지만, 외관·당도는 좋지 않을 듯

- 11월에 출하될 단감은 충분한 강우로 과실 비대가 양호해 과 크기는 전년보다 클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태풍으로 인한 흠집 발생으로 외관이 전년보다 좋지 못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도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11월 단감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7,0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3천~2만 5천 원으로 전망된다.

■ 2019년산 단감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년		8,639	1,223	105.7
2018년		9,108	1,146	104.4
평년		10,479	1,348	141.3
증감률	전년 대비	-5.1	6.8	1.3
	평년 대비	-17.6	-9.3	-25.2

주: 평년은 2014~18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2018년, 2019년 재배면적),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단감 품종별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부유	차랑	서촌	태추
재배면적	-5.6	-5.5	-10.5	2.4
단수	8.8	1.1	-16.5	4.3
생산량	2.7	-4.4	-25.3	6.9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단감 출하량 전망

단위: 천 톤, %

구분		11월	12월 이후
2019년산		32.7	73.0
2018년산		31.4	72.9
평년		38.7	102.6
증감률	전년 대비	3.9	0.1
	평년 대비	-15.7	-28.8

주: 평년은 2014~18년산 자료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생산량 및 출하량 전망치는 향후 기상 여건과 생육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1월 단감 품질 (전년 대비)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크기	44.8	30.4	24.8
외관	23.0	37.4	39.6
당도	16.7	44.4	38.9

자료: 농업관측본부, 10월 29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향후 기상 여건에 따라 당도·착색 등 품질은 변동될 수 있음.

포도

동향 10월 캠벨얼리, MBA 가격 하락, 샤인머스캣은 상승

- 10월 캠벨얼리, MBA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타 품종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와 소비대체 과일류의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캠벨얼리가 전년 대비 36% 하락한 상품 5kg에 1만 4,900원, MBA는 전년보다 22%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2,200원이었다.
- 반면, 샤인머스캣은 반입량 증가에도 소비자 구매 의향이 높아 전년 대비 5% 높은 상품 2kg 상자에 2만 3,800원이었다.

생산량 2019년 포도 생산량 전년보다 6% 감소 추정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6% 적은 16만 5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 시설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5% 많은 2만 4천 톤, 노지포도는 전년 대비 8% 적은 14만 1천 톤으로 추정된다.
-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거봉, MBA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6%, 3%, 5%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샤인머스캣은 성목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하 11월 샤인머스캣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1월 샤인머스캣 출하량은 성목면적이 증가한데다, 착과량도 많아 전년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도 전체 출하량은 캠벨얼리와 MBA 저장량이 적어 전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11월 샤인머스캣 가격 전년 대비 낮을 전망

- 11월 샤인머스캣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만 2,200원)보다 낮은 상품 2kg 상자에 2만 8천~3만원으로 전망된다.

■ 포도 월별 도매가격 (상품)

단위: 원

구분	캠벨얼리(5kg)		샤인머스캣(2kg)		
	9월	10월	9월	10월	11월
2019년	13,780	14,886	26,765	23,808	(26,539)
2018년	19,580	23,028	20,497	22,712	32,182
평년	13,680	14,207	-	-	-

주 1) 평년은 2014~2018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2019년 11월 가격은 1~4일까지 평균 가격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포도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시설	2019년	1,693	1,391	23.6
	2018년	1,627	1,380	22.5
	증감률	4.1	0.8	4.9
노지	2019년	8,902	1,589	141.4
	2018년	9,762	1,567	152.9
	증감률	-8.8	1.4	-7.5
전체	2019년	10,595	1,557	165.0
	2018년	11,389	1,540	175.4
	증감률	-7.0	1.1	-5.9

자료: 통계청(2018년, 2019년 성목면적),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품종별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캠벨얼리	거봉	샤인머스캣	MBA	델라웨어
성목면적	-4.6	-3.8	47.3	-2.0	-2.4
단수	-1.6	0.7	56.6	-2.7	2.2
생산량	-6.0	-3.2	130.7	-4.6	-0.2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11월 포도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샤인머스캣	포도 전체
85.8	-16.2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포도 오렌지 11월 포도·오렌지 수입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0월 포도 수입량은 태풍으로 입항이 지연된 9월 물량이 10월에 통관되어 전년 대비 8% 증가하였다. 11월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미국(2018년 기준 85%)의 잦은 강우에 따른 품위 저하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오렌지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남아공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다. 11월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남아공(2018년 기준 69%)의 작황 부진에 따른 출하 조기 종료와 칠레(2018년 기준 26%)의 잦은 강우로 인한 품위 저하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몬 망고 11월 레몬·망고 수입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0월 레몬 수입량은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잦은 강우에 따른 수확 지연과 칠레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다. 11월 수입량은 국내 소비 둔화에 따른 재고 누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망고 수입량은 태국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다. 11월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태국(2018년 기준 53%)의 기상 여건 개선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작황 호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나나 파인애플 11월 바나나·파인애플 수입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0월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량은 필리핀의 생육기 고온·건조한 기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12% 감소하였다.
- 11월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량은 주 수입국인 필리핀의 기상 개선으로 전월보다 증가하나, 산지 작황 호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도 수입량

단위: 톤

구분	1~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9년	53,400	5,246			58,646
2018년	41,031	4,859	7,963	6,145	59,998
평년	46,427	2,464	2,464	2,465	55,145

주: 평년은 2014~18년 수입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오렌지 수입량

단위: 톤

구분	1~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9년	120,144	1,647			121,791
2018년	136,605	3,804	1,157	877	142,443
평년	123,860	1,825	813	1,685	130,745

주: 평년은 2014~18년 수입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레몬 수입량

단위: 톤

구분	1~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9년	14,955	1,447			16,402
2018년	13,264	1,682	1,175	1,463	17,584
평년	11,833	1,198	1,089	1,137	15,257

주: 평년은 2014~18년 수입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망고 수입량

단위: 톤

구분	1~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9년	15,752	764			16,516
2018년	14,654	789	732	780	16,954
평년	10,549	558	508	454	12,838

주: 평년은 2014~18년 수입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바나나 수입량

단위: 톤

구분	1~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9년	284,486	29,816			314,302
2018년	329,024	34,333	33,837	29,956	427,150
평년	296,219	30,797	30,499	29,767	387,282

주: 평년은 2014~18년 수입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파인애플 수입량

단위: 톤

구분	1~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9년	52,399	6,364			58,763
2018년	58,188	7,250	6,780	5,301	77,520
평년	57,376	6,414	6,346	5,698	75,834

주: 평년은 2014~18년 수입량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올해 사과·배 저장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11월 가격 전망 주요 과일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 사과(후지)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만 2천~2만 4천원/10kg 전망
- 배(신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3만 4천~3만 7천원/15kg 전망
- 감귤(노지온주)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1,200~1,500원/kg 전망
- 단감(부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만 3천~2만 5천원/10kg 전망
- 포도(샤인머스켓)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만 8천~3만원/2kg 전망

생산량 전망 포도를 제외한 주요 과일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 사과·배 생산량은 착과수 증가와 과 비대 양호로 단수 늘어 전년 대비 각각 7%, 3% 증가 전망
- 감귤(노지온주) 생산량은 서귀포 중심으로 착과수 많고, 과 비대 원활하여 전년 대비 7% 증가 전망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하였으나, 과 비대 양호로 단수가 늘어 전년 대비 1% 증가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성목면적 감소폭이 커 전년 대비 6% 감소 전망

2019년 주요 과일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감률(%)

사과	배	감귤(노지온주)	단감	포도
6.8	3.3	7.0	1.3	-5.9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4일 기준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관측(과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농업인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 및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과일 관측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품목에 대하여 매월 5일에 발표됩니다.

월보 및 속보 관련 정보를 핸드폰 문자(SMS)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또는 담당자(061-820-2310)에게 연락바랍니다.

2019년 12월호 예고

예정일자: 2019년 12월 5일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61) 820-2289 | FAX: 061) 820-2410
http://www.mafra.go.kr ☎ 044) 201-2260 | FAX: 044) 868-0132
담당자: 윤종열(과일과채관측팀장), 이미숙(사과, 복숭아), 박한울(배, 감귤), 홍승표(포도, 단감), 김수연(수입과일)
감 수: 국승용(농업관측본부장)